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용 머리쓰개에 관한 연구

강 서 영 · 김 지 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Women's Daily Headdresses in the Joseon Dynasty

Seo-Young Kang · Jiyeon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7. 8, revised date: 2015. 8. 7, accepted date: 2015. 8. 21)

ABSTRACT

This article studied women's headdresses that appeared in the paintings of *Joseon* Dynasty. This examined the shapes of women's headdresses painted in genre paintings, record paintings and nectar ritual paintings from *Joseon* Dynasty and compared them to literatures and relics in order to analyze their types and characteristics. Headdres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① square cloth worn on the top of the head; ② a kind of small cap; ③ Cloth that completely covers the head. The first type of headdress resembles the shape of *Garima*.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it was worn not only by *Gisaeng*, but also by both upper and lower class women. The second type of headdress includes a cap made by connecting several cloths, round cap, and cone-shaped cap. These two types are worn on top of the head. However, sometimes these were worn between the head and the chignon to fix the chignon. Also, these were used as hair accessories for decorative purposes. In particular, old women wore these headdresses and braided their white hair around them to fix the chignon. This way, the headdress not only kept the head warm, but also hid the old women's scanty hair. Headdress was usually made of black fabric and it was a simple hair accessory that replaced the wig. The third type of headdress was widely worn among lower class women. The cloth completely covered the head so that the hair would not fall when working. It also provided protection from cold and hot weather. According to paintings, there were many ways of wearing the cloth around the head.

Key words: *Garima*(가리마), hairstyle(머리모양), headdress(쓰개), *Jokduri*(죽두리), *Somoja*(소모자)

I. 서론

전통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 머리쓰개는 머리 손질을 간편하게 하고 햇볕을 가리거나 추위를 막는 등의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비하였다. 여성이 머리에 간단한 수건을 두른 모습은 일찍이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되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료는 아직 미비하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풍속화 및 기록화, 감로도 등을 보면, 그림 속 다양한 상황에 나타난 민간 여성의 차림새를 통해 머리쓰개의 유형 및 용례, 시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화의 면밀한 고찰과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된 출토 유물과의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면 당시 여성의 일상적 두식(頭飾)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간 조선시대 여성의 쓰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례용이나 폐면용, 방한용 쓰개에 관해 연구된 논문이 많으며, 연구 범위가 제한적인 까닭에 일상적 쓰개의 전모(全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출토된 여성 쓰개 유물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논문들(Choi, 2012; Jung, 2013; Kim, 2014)을 보면, 세부 주제에 집중한 연구거나 유물 중심의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루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외된 문헌·회화·유물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이들을 통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일상생활을 그린 여러 회화 자료에 나타난 여성의 머리쓰개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관련된 유물 및 문헌 기록을 함께 비교 분석한다. 조선 여성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던 쓰개에 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며, 출토되는 유물만으로는 실제 착용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화 고찰은 제한된 사료(史料)를 보완하고 다양한 착용례와 형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여성의 일상에 나타난 머리쓰개의 유형 및 사용을 고찰함으로써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용 쓰개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회화의 여러 갈래 중 풍속화(風俗畵)를 가장 주요한 시각자료로 선정한다. 풍속화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으로 지위의 고하(高下)나 신분에 상관없이 백성의 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생활상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Kim, 1996). 특히 조선 후기 18세기에 유행한 풍속화는 사소하고 평범한 서민 풍속 자체에 대한 관심에 의한 것이며(Chung, 2011), 윤리적 제약을 탈피하려는 여성의 활동을 주제로 하여 노동은 물론 여성의 여가와 야외활동의 모습도 상세히 담고 있어(Lee, 2006), 여성의 일상 쓰개 착용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18·19세기 풍속화는 조선여성의 쓰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데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 전·중기의 기록화(記錄畵)와 감로도(甘露圖)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기록화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들을 사실에 충실하게 묘사하는 기념적인 기록으로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그려져 왔다.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록화의 특징상 당시의 풍속이나 풍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Yu, 2002). 감로도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할 목적으로 여러 제의식(齋儀式)에 사용되어온 불화이다. 다른 불화와는 달리 천도대상인 서민들의 생활상이 그림 하단에 표현되어 있어 풍속화적 성격을 함께 지니기에(Lee, 1998), 감로도 역시 여성의 두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제재(題材)가 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 자료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풍속화와 기록화, 감로도 가운데 기녀(妓女)·무녀(巫女)·여승(女僧)과 같은 특수직 여성을 제외하고 민간의 여성이 일상에서 쓰개를 착용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표현된 작품에서 선정한다. 일상에서의 보편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착용 목적과 상황이 분명한 폐면용 쓰개 및 방한을 위한 이엄류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렇게 선정된 회화 자료는

〈Table 1〉 List of Paintings

No.	Date (Painter)	Title	Holding Institution	Source
1	Circa. 1550 (unknown)	<i>Hojonang-gwan-gyehoedo</i> [호조낭관계회도: 戶曹郎官契會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49
2	1584 (unknown)	<i>Giyeonghoedo</i> [기영회도: 耆英會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56
3	1585 (unknown)	<i>Seonjojogiyounghoedo</i> [선조조기영회도: 宣祖朝耆英會圖]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58
4	1701 (unknown)	<i>Namjangsa Gamrodo</i> [남장사 감로도: 南長寺 甘露圖]	<i>Namjangsa</i> [남장사: 南長寺]	Kang & Kim, 1995, p. 55
5	1720 (unknown)	<i>Gisa-gyecheop, Eo-cheopbong-ando</i> [기사계첩, 여침봉안도: 耆社契帖, 御帖奉安圖]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ed.), 2007, p. 72, 75
6		<i>Gisa-gyecheop, Bongbae-gwisado</i> [기사계첩, 봉배귀사도: 耆社契帖, 奉盃歸社圖]		
7	1724 (unknown)	<i>Gapjin-gisayeonhoecheop,</i> <i>Gapjin-gisayeonhoedo</i> [갑진기사연회첩, 갑진기사연회도: 甲辰耆社宴會帖, 甲辰耆社宴會圖]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117
8	Early 18th century (Yoon Doo-Seo, 1668 - 1725)	<i>Chae-ae-do</i> [채애도: 採艾圖]	<i>Haenam</i> <i>Nok-udang</i> [해남 녹우당]	Joongangilbosa (ed.), 1985, p. 76
9	1730 (unknown)	<i>Iwon-giro-gyecheop, Iwon-giroheodo</i> [이원기로계첩, 이원기로회도: 梨園耆老契帖, 梨園耆老會圖]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65
10	1744 - 1745 (Jang Deuk-Man, 1685 - 1764), (Jeong Hon-Rae, 1720 - 1791)	<i>Gisa-gyeonghoecheop, Sa-akseon-gwisado</i> [기사경회첩, 사악선귀사도: 耆社慶會帖, 賜樂膳歸社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124, 126
11		<i>Gisa-gyeonghoecheop, Bonsosayeondo</i> [기사경회첩, 본소사연도: 耆社慶會帖, 本所賜宴圖]		
12	Mid 18th century	<i>Gamrodo</i> [감로도: 甘露圖]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Kang & Kim, 1995, p. 135
13	18th century (Jo Yeong-seok, 1686 - 1761)	<i>Sajecheop, Ba-neujil</i> [사제첩, 바느질: 麤臍帖, 裁縫]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Joongangilbosa (ed.), 1985, p. 86
14		<i>Chon-gayeohaeng</i> [촌가여행: 村家女行]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 (ed.), 2011, p. 25
15	18th century (Kim Hong-Do, 1745 - 1806?)	<i>Gyeongjipungsookdo</i> [경직풍속도: 耕織風俗圖]	Hanyang University Museum	Hanyang University Museum (ed.), 2003, p. 33

16		<i>Danwonpungsokhwacheop, Gilssam</i> [단원풍속화첩, 길쌈: 園風俗畫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96
17		<i>Gyeongjikdo</i> [경직도: 耕織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225
18	18th century (Kim Hong-Do, 1745 - 1806?)	<i>Haengryeo-pungsokdobyong, Tadorakchi</i> [행려풍속도병, 타도락취: 行旅風俗圖屏, 打稻樂趣]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35
19		<i>Pyeongsaengdo</i> [평생도: 平生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93
20		<i>Modang Hong-isang Pyeongsaengdo</i> [모당 홍이상 평생도: 慕當 洪履祥 平生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p. 90-91
21	1790 (unknown)	<i>Yongjusa Gamrodo</i> [용주사 감로도: 龍珠寺 甘露圖]	Private Collection	Kang & Kim, 1995, p. 176
22	1795 (unknown)	<i>Hwaseongneunghaengdobyong</i> [화성능행도병: 華城陵幸圖屏]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p. 16-17
23	18~19th Century (Kim Deuk-Sin, 1754 - 1822)	<i>Pungsokpalgok, Gwiinhaengcha</i> [풍속8곡, 귀인행차: 風俗八曲, 貴人行次]	Ho-Am Art Museu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3, p. 31
24	18~19th Century (Shin Yun-Bok, 1758 - ?)	<i>Cheong-geumsangryeon</i> [청금상련: 廳琴賞蓮]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 (ed.), 2000, p. 66
25		<i>Yeosokdocheop, Jeojatgil</i> [여속도첩, 제갓길: 女俗圖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71
26		<i>Pyo-myobong-yok</i> [표묘봉옥: 漂母逢辱]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 (ed.), 2002 p. 101
27	18th century (unknown)	<i>Gyeongjikdo</i> [경직도: 耕織圖]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upplied for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8	18th century (unknown)	<i>Hoehonryecheop</i> [회혼례첩: 回婚禮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p. 112-113
29	18th century (unknown)	Portrait of <i>Jo Ban's</i> wife [조반 부인 초상: 趙伴婦人肖像]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7, p. 100
30	Late 18th century (unknown)	<i>Pyeong-yang-gamsayeonhoedo</i> [평양감사연회도: 平壤監司饗宴圖]	Peabody Essex Museum	National Gugak Center (ed.), 2003, p. 16, 22
31	19th century (unknown)	<i>Pyeongsaengdo</i> [평생도: 平生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p. 102-103
32	19th century (Kim Jun-Geun, ? - ?)	<i>Bosalchingnyeo</i> [보살칭녀: 菩薩稱女]	Musée National des art asiatique Guimet	Cheong Gye Cheon Museum (ed.), 2008, p. 28, 32
33		<i>Geolsiknyeo</i> [걸식녀: 乞食女]		Cheong Gye Cheon Museum (ed.), 2008, p. 28, 44

34	19th century (unknown)	<i>Pungsokdobyong, Tujeon</i> [풍속도병, 투전: 風俗圖屏 鬪戔]	Musée National des art asiatique Guime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1999, p. 100
35	Late Joseon Period (unknown)	<i>Pungsokhwacheop</i> [풍속화첩, 독나르기: 風俗畫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201
36	Late Joseon Period (unknown)	<i>Pungsokdo</i> [풍속도: 風俗圖]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226

총 36건으로 그 목록은 <Table 1>과 같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그림 속 여성의 착장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여 서로 비슷한 형태의 쓰개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분류된 각각의 쓰개를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관련된 문헌 기록을 살펴보고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를 병행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슷한 유형의 남성 쓰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여성용 쓰개만의 특징과 용도 및 기능을 분석한다.

III. 쓰개의 유형과 특징

1. 사각 천 형

부녀의 일상에서 머리 위에 사각 천을 얹은 모습은 조영석(趙榮祿, 1686-1761)이 그린 <Fig. 1>의 ‘바느질’, 김홍도(金弘道, 1745-1806)가 그린 <Fig. 2>의 ‘경직풍속도(耕織風俗圖)’에서 발견된다. <Fig. 1>은 방 안에서 옷을 만들고 있는 3명의 인물 중 오른쪽에 앉아 가위를 들고 옷감을 자르고 있는 여성인데, 얹은머리를 하고 검은색의 작은 사각 천을 두상에 얹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2>의 여성은 베틀에 걸 날실에 풀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얹은머리 위에 검은 천을 반쯤 걸쳐 써서 이마를 약간 가리고 그 위에 다시 체발(髻髮)을 올려 연출하였다. 이같이 일반 부녀들의 머리 위에 사각 천을 얹은 모습이 풍속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쓰개의 형태와 착용 방식에 있어서 가리마[遮額]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가리마에 관하여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경

도잡지(京都雜誌)』를 보면, “내의원(內醫院)과 혜민서(惠民署)에 있는 의녀(醫女), 공조(工曹)와 상의원(尙衣院)에는 있는 침선비(針線婢)는 관동(關東)과 삼남(三南)에서 뽑아 올린 기생이며, 연회 때 불러 모아 가무(歌舞)하게 하였다. 내의원 의녀는 흑단(黑緞) 가리마(加里麼)를 쓰고 나머지는 흑포(黑布)로 하였는데 방언(方言)으로 먹(幕)이다. 형태는 서투(書套)와 같고 쪽[髻]을 덮을 수 있다.¹⁾”고 하였고, 또 『정조실록(正祖實錄)』 12년(1788) 10월 3일(신묘) 기사에서는 “각 궁방(宮房)의 무수리[水賜里]·내의녀·침선비와 각 영읍(營邑)의 여기(女妓)는 본발(本髮)을 머리에 얹고 그 위에 가리마(加里么)를 쓰며, 등위(等威)를 구별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의녀는 여전히 모단(冒緞)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흑삼승(黑三升)을 사용한다.²⁾”고 하였다. 의녀나 기녀가 가리마를 쓴 것은 위의 문헌뿐만 아니라 <Fig. 3>의 ‘기영회도(耆英會圖)’나 신윤복(申潤福, 1758-?)의 그림인 <Fig. 4>의 ‘청금상련(聽琴賞蓮)’과 같은 기록화·풍속화에서도 종종 확인되는 모습이므로, 가리마는 일반적으로 의녀나 기녀 등과 같은 특수직의 하급 여성들이 쓰는 예장용 쓰개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Lee(2001)의 연구에서처럼 곽주(郭澍,

1) 京都雜誌, 卷之一, 風俗, 醫女. “內醫院惠民署有醫女工曹尙衣院有針線婢皆關東三南選上妓也 宴集招致歌舞內醫院醫女戴黑緞加里麼餘用黑布爲之加里麼者 方言幕也其形如書套可以幕髻”

2) 正祖實錄, 26卷, 12年(1788) 10月 3日(辛卯) “各宮房水賜里、醫女、針線婢、各營邑女妓, 則本髮加首之上, 戴以加里么, 以示區別等威之意, 內醫女仍用冒緞, 餘則用黑三升”

〈Fig. 1〉 Woman Wearing a Square Cloth
(Joongangilbosa (ed.), 1985, p. 86)

〈Fig. 2〉 Woman Wearing a Square Cloth
(Left · Center: Hanyang University Museum (ed.), 2003, p. 33
Right: Illustrated by Researcher)

〈Fig. 3〉 Ginyeo's Garim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56)

〈Fig. 4〉 Ginyeo's Garim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 (ed.), 2000, p. 66)

1569-1617)와 그의 부인 진주 하씨(晉州 河氏, ?-1652 전후)가 주고받은 언간(諺簡) 중에, “아주버님이 오늘 가실 길에 ... 자네를 보려고 가시니 머리를 꾸미고 가리매를 쓰도록 하소.”라는 문구를 보면, 17세기 초 가리마가 반가 여성들의 성장용 머리쓰개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조극선(趙克善, 1595-1658)의 『야곡집(冶谷集)』 중 「삼관기(三官記)」를 보면, “우리나라 부인이 현금(玄錦)이나 자금(紫錦) 전폭 2자 2치를 가지고 가운데를 접어 2겹으로 만들고 두터운 종이를 그 안에 붙여서 쓰는데,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덮고 뒤쪽으로 드리워 어깨와 등까지 미치게 하니, 이를 차액(遮額)이라 한다. 광해 중년(中年)³⁾ 이후 ... (죽두리가) 한동안 유행하면서 나라의 풍속이 변하여 차액의 제도가 사라졌다.⁴⁾”고 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17세기 전반까지 가리마란 일반의 부인도 쓰는 쓰개이며 기녀와 같은 특수계층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문헌 기록보다 앞선 시기인 16세기 중후반 반가 여성의 분묘에서는 당시 가리마로 판단되는 유물이 출토되어 부녀들의 가리마 착용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Jung(2013)의 연구를 보면, 여흥 이씨(驪興 李氏, 1592년 이전 쉰 추정)의 묘에서 〈Fig. 5〉와 같이 망자(亡者)의 미라가 염습의(殮襲衣)로써 가리마를 머리에 쓴 채로 출토된 모습이 소개되었고, 가리마를

或紫錦全幅二尺二寸 中屈之爲兩重 以厚紙貼其裏以戴之 從額覆頂 垂于後以加肩背 謂之遮額 音從釋諺。自光海中年以來 率用玄錦爲表 以絮爲裏 而空其中 貼戴頭上如着頭然 謂之足頭裡 音皆從字音。其制圓裁 一片如月形 置其中 又橫裁七片 而上狹下廣 以狹頭環綴於圓裁處 而當額一片最短 左右各二片 參差漸長 後二片均之最長 跨頂下至于後頂縫合 其武穹然而圓 有大中小三品。一時好尙。遂變國俗。遮額之制絕無矣。議者以爲此。亦近於胡服。乃服胡之兆也。”

3) 광해군 재위 기간이 1608-1623년이므로, 광해군 중년은 대략 1610년 중반으로 짐작된다.

4) 冶谷集, 冶谷先生集卷之十, 三官記 “我國婦人。以玄錦

〈Fig. 5〉 Lady Lee Wearing *Garima*
(Jung, 2013, p. 38)

〈Fig. 6〉 *Garima* of Lady Lee
- Outside(left) and Inside(right)
(Jung, 2013, p. 51)

〈Fig. 7〉 16C *Ginyeo's Garim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56)

〈Fig. 8〉 16C *Ginyeo's Garima*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58)

〈Fig. 9〉 *Dusu*
(Gukjosok-orye-ui, 1744)

복원하는 과정 중에서 이전에 출토된 파평 윤씨(坡平 尹氏, 1566년卒) 묘의 용도미상 보공용(補空用) 직물 2점 역시 여흥 이씨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가리마임이 확인되었다. 구성 방법을 보면 길게 마름한 천 안쪽에 종이 배접된 것이 「삼관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다만 〈Fig. 6〉과 같이 가리마의 가운데가 접힌 검은 자국이 보이며, 이는 가리마의 앞부분이 접힌 〈Fig. 4〉의 그림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가리마의 착용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완성된 머리모양 위에 가리마를 덮어 쓴 모습이지만, 그보다 이른 시기인 〈Fig. 5〉의 미라는 가리마를 먼저 머리에 얹고 그 위를 체발로 두른 방식이다. 흥미로운 점은 〈Fig. 6-右〉처럼 가리마 안쪽 면에 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이는 가리마 위에 체발을 올렸을 때 한층 안정적으로 체발을 고정시키면서 동시에 압박감을 덜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

은 기녀의 차림새를 그린 〈Fig. 7〉, 〈Fig. 8〉과 같이 조선 전기 기록화에 나타난 방식과도 흡사하므로, 신분을 막론하고 당시에 공통적으로 성행한 착용법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내외명부 참취(斬衰) 3년의 복제(服制) 중에 두수(頭簪)가 있고, 본국(本國)의 수파(首帕)로 대신한다고 하였는데, 두수의 형태는 1744년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Fig. 9〉와 같이 가리마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근거로 Lee(2001)와 Choi(2002)의 연구에서는 가리마·두수·수파를 모두 동일한 쓰개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다.

문헌에 기록된 수파는 『세종실록』 세종 10년(1428) 1월 21일(갑진) 기사에서 여성의 수식품으로 언급된 바 있고⁵⁾,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19년(1488) 4

5) 世宗實錄, 39卷, 10年(1428) 1月 21日(甲辰) “又於明淡

월 26일(기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수식(首飾)이 중국과 매우 다르니 중국 사신이 보는 곳에서는 여성이 흰색 수파와 숨을 넣은 수파[綿子首帕]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대목⁶⁾이 있어 주목되며, 이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 11년(1505) 4월 21일(병자) 기사에서도 도성(都城)안의 여성이 수파를 쓰는 것을 금지하라는 기록이 보인다⁷⁾.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수파가 가리마 같은 형태라면, 앞서 본 <Fig. 5 - Fig. 8>과 같은 쓰개가 조선 전기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 만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면자수파가 흑시 <Fig. 6>과 같이 가리마 안쪽에 숨을 낸 유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의심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가리마가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특정한 계층에 한정된 쓰개가 아니었으며, 직사각형으로 만든 천을 체발 아래에 받쳐서 쓴 착용법 또한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는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조극선이 쓴 「삼관기」의 기록에 의하면, 가리마의 사용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수식의 유행이 족두리로 옮겨가면서 민간 부녀들의 일상 쓰개로서 가리마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Fig. 1>, <Fig. 2>와 같이 서민층 여성이 노동하는 장면에서 가리마 비슷한 모양의 사각천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은 가리마[두수, 수파]를 일상에서 사용했던 조선 전기 습속의 유제로 생각된다.

한편,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병계집(屏溪集)』을 보면 ‘권형숙(權亨叔)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노부인(老婦人)이 머리에 천을 얹은 일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정수리의 머리카락은 머리를 묶는데 당기어져서 상투를 만든 지 오래되면 죄다 빠져버립니다. 전처(前妻)가 살아 있을 때 만년에 병이 많은데다가

또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서 상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듣자니, 꼭 정수리 뒤의 머리에 상투를 틀 필요가 없고, 정수리 머리카락을 묶어서 상투를 만들고, 모단(冒緞) 약간을 써서 양쪽으로 머리카락을 엮어서 이른바 첩지(疊紙)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모단을 정수리 위에 붙이고 양쪽으로 머리카락을 엮어 양쪽으로 드리우고 본 머리카락과 정수리에서 교차시킨 뒤 좌우로 나누어 정수리 쪽으로 올려 묶어서 상투를 만듭니다. 그러면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폐단이 절로 없어집니다.⁸⁾

이 기록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집안의 여성이 중국 양식의 굴계(屈髻)를 행하였던 수발 풍속을 설명한 대목인데, 노년이 되어 정수리의 머리카락이 숱이 적어서 머리모양을 만들 수 없게 되자, 모단(冒緞) 약간을 사용하여 정수리를 가리고 모단 양 옆에 머리카락을 붙여서 만든 ‘첩지(疊紙)’를 이용하여 원래 머리카락과 합쳐서 쪽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3년(1757) 12월 18일(병자) 기사에서도 정언유(鄭彦儒)가 아뢰기를, “머리카락이 없는 노부녀는 매우 고민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것은 첩지(貼只)가 마땅할 것이다.”⁹⁾라고 이른 것을 보면, 첩지를 사용하여 숱이 적은 머리를 보완하는 풍속이 일부 집안만의 사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 말기 첩지 유물은 작은 크기의 예장용 머리 장식이지만 18세기에는 실용적인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빈약한 정수리 숱을 가릴 정도면 모단의 크기가 아주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이든 여성의 머리술을 보완하기 위한 색다른 용도로 검은 천이 사용된 것은 여성의 일상 쓰개가 여성의 머리 모양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쓰개를 쓰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남성의 경우는 관모가 상투를 완전히 덮는 형태이지만, 여성은 기혼의 경우 체발을

度牒箱中，有女人首帕及紡績之物，事頗可疑，請囚禁推鞠。”

6) 成宗實錄, 215卷, 19年(1488) 4月 26日(己未) “且本國女人衣服首飾，頓異中朝，而首飾尤甚，未易卒變。但天使所見處白首帕、綿子首帕，一皆禁斷事，所經諸道，并馳書以諭。”

7) 燕山君日記, 57卷, 11年(1505) 4月 21日(丙子) “命禁都城女首帕及白色裳”

8) 屏溪集, 屏溪先生集 卷之十四, 書, 與權亨叔, “頂髮牽於束髮。作髻久則盡落。前內子生時。晚季多病。且無頂髮。不能作髻矣。近來聞之。不必以頂後上髮。束於頂髮而作髻。用冒緞小許兩頭編髮作。所謂疊紙者。以冒緞貼於頂上。以兩邊編髮。垂於兩邊。與本髮交於頂後。分左右上之於頂。束之而作髻。自無頂髮脫落之弊也。”

9) 承政院日記, 英祖 33年(1757) 12月 18日(丙子) “彦儒曰, 髮禿老婦女, 極以爲悶矣。上曰, 此則貼只宜矣。”

머리에 둘러 연출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커다란 쓰개로 머리를 온전히 덮는 것을 제외하면, 쓰개와 체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머리 형태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각 천을 머리에 엮는 것은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식용 쓰개인 동시에, 체발을 고정하거나 머리숱을 보완하는 용도의 실용적인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시기에 따른 세부 변화에 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함께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로 사료된다.

2. 모자 형

조선 후기의 회화를 살펴보면 부녀들이 머리 위에

챙이 없는 모자를 쓴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모자의 형태가 자세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색깔과 실루엣만으로 짐작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은 검은색 또는 아청색으로 머리카락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모자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부녀가 일상에서 모자를 쓰는 일이 당시에 상당히 일반화된 풍속이었음이 짐작된다.

회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 모자가 등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헌 기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자들의 정확한 명칭이나 용도, 재질, 제작 방법을 밝히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

<Table 2> Excavated Caps of Women from the 16th to 17th centuries

No.	Tomb's owner		Photo of remains	Size(cm)		Fabric		Type	Source
	Birth-death date	Name		Height	Girth	Upper	Lining		
1	Circa 15th century	unknown [인천 석남동 출토; 仁川 石南洞 出土]		15.0	62.7	Cotton-Hemp [면마교직]	Woolen Felt [毛織: 펠트]	Cotton Padded Hat (Quilting*) [숨, (누비*)]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ed.), 2005, pp. 98-99, 183
2				17.5	64.5	Myeonju [면주:綿紬]	Woolen Felt [毛織: 펠트]	Cotton Padded Hat [숨]	
3	1458-1538	Jeoksseong-Lee [적성 이씨:積城 李氏]		-	-	Toju [토주:吐紬]	Toju [토주:吐紬]	Lined Hat [겹]	Kim, 2006, p. 38, 41
			-	-	Ju [주:紬]	Ju [주:紬]	Lined Hat [겹]	
4	1509-1584	Yeongyang-Nam [영양 남씨:英陽 南氏]	Yukhapmo [육합모]	-	-	-	-	-	Lee, 2013, p. 48
5	?-1585	Byeokjin-Lee [벽진 이씨:碧珍 李氏]	Mo [모:帽]	-	-	-	-	-	Park, 1992, p. 229
6	Mid 16th century	Andong-Gwon [안동 권씨:安東 權氏]		11.5	64.5	Mumundan [무문단:無紋緞]	×	Cotton Padded Hat [숨]	Museum of Old Roads (ed.), 2010, pp. 188-189

7	Mid 16th century	<i>Ilseon-Mun</i> [일선 문씨: 一善 文氏]		23.0	66.0	<i>Danja</i> [단자: 緞子]	<i>Myeongju</i> [명주: 明紬]	Cotton Padded Hat [숨]	And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ed.), 2000, pp. 209-210
8	Mid 16th century	<i>Hamyang-Bak</i> [함양 박씨: 咸陽 朴氏]		-	-	<i>Hwamun-dan</i> [화문단: 花紋緞]	×	Cotton Padded Hat [숨]	Kim, 2012, pp. 21, 67
9	Mid 16th century	<i>Pyeongsan-Sin</i> [평산 신씨: 平山 申氏]		23.0	68.0	<i>Mumun-dan</i> [무문단: 無紋緞]	<i>Ju</i> [주: 紬]	Cotton Padded Hat [숨]	Museum of Old Roads (ed.), 2005, pp. 113
10	Late 16th century	<i>Euin-Bak</i> [의인 박씨: 宜人 朴氏]		24.0	56.0	<i>Sagyeong-gyora</i> [사경교라: 四經絞羅]	×	Unlined Hat [홀]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2, pp. 166-167
11	Late 16th century	<i>Chungju-Bak</i> [충주 박씨: 忠州 朴氏]		23.5	≒ 61.6	<i>Myeongju</i> [명주: 明紬]	<i>Myeongju</i> [명주: 明紬]	Lined Hat [겹]	Daejeon Metropoli- tan C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Traditional Costume Research Institute (ed.), 2007, pp. 24, 314, 343
12	Late 16th -Early 17th century	<i>Sunheung-An</i> [순흥 안씨: 順興 安氏]		-	-	<i>Mumundan</i> [무문단: 無紋緞]	×	Cotton Padded Hat [숨]	
13	1566 -1626	<i>Yangcheon-Heo</i> [양천 허씨: 陽川 許氏]		28.0	≒ 60.0	Cotton [무명: 綿]	-	Cotton Padded Hat [숨]	Koh, 1999, p. 100
14	Early 17th century	<i>Jeon-Bak-Janggun</i> [전 박장군]		front 9.0/ back 27.0	94.0	<i>Myeongju</i> [명주: 明紬]	×	Cotton Padded Hat [숨]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d.), 1997, p. 329
15	Early 17th century	<i>Gurye-Son</i> [구례 손씨: 求禮 孫氏]		-	-	-	-	Cotton Padded Hat [숨]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d.), 1997, p. 317
16				front 6.5/ back 15.5	top 87.0/ bottom 69.5	-	-	Cotton Padded Hat [숨]	Kim, 2008, p. 106
17				front 8.0/ back 17.5	top 95.0/ bottom 63.0	-	-	Cotton Padded Hat [숨]	
18				front 4.5/ back 10.0	top 85.5/ bottom 61.0	-	-	Cotton Padded Hat [숨]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ed.), 2008, pp. 75-76

19	1580 -1645	<i>Jinju-Ha</i> [진주 하씨: 晉州 河氏]		22.0	64.0	Cotton [무명: 綿]	Cotton [무명: 綿]	Cotton Padded Hat [숨]	Geondeulbaw Museum (ed.), 1991, pp. 34-35
20	Mid 17th century	<i>Jinseong-Lee</i> [진성 이낭: 眞城 李娘]		19.0	79.0	<i>Mumundan</i> [무문단: 無紋緞]	×	Cotton Padded Hat [숨]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2012, pp. 106-107, 182
21	17th century	<i>Eunjin-Im</i> [은진 임씨: 恩津 林氏]		-	-	<i>Myeongju</i> [명주: 明紬]	<i>Myeongju</i> [명주: 明紬]	Cotton Padded Hat [숨]	Kim, 2004, p. 60
22	1589 -1657	<i>Jeju-Yang</i> [제주 양씨: 濟州 梁氏]		11.0	60.0	-	-	Cotton Padded Hat [숨]	An, 2014, p. 194
23				-	-	-	-	Cotton Padded Hat [숨]	
24	1600's	<i>Gyeongju-Lee</i> [경주 이씨: 慶州 李氏]		-	-	<i>Dan</i> [단: 緞] / Cotton [숨: 綿子]	-	Cotton Padded Hat [숨]	Gwangju Folk Museum (ed.), 2000, p. 36

記』에 명종 10년(1555) 10월 23일(甲申), “효갑(孝甲)의 부인 정씨가 비단 솜모자[襦段帽子]를 사서 노부인[老妻]이 계산 곳에 보냈다.¹⁰⁾”는 기록을 보면, 비록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조선 전기에 여성들이 모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농포문답(農圃問答)』에 가채(加髻)의 대응으로 “지금 풍속에 속칭 족두리[足道理]와 흑모자(黑帽子) 역시 무방하다.¹¹⁾”라고 언급된 것을 볼 때, 18세기 부녀의 쓰개로 족두리 이외에 흑모자로 지칭되던 품목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Kim & Hong(2010)의 연구에 나타난 18세기 족두리 관련 문헌과 유물에서 확인되듯이,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며 둥근 모정(帽頂)을 낸 특정한 구조의 모자를 족두리로 지칭하였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검은 모자 종류를 일컬어 흑모자로 통칭한 것이 아닐까 한다.

회화에 묘사된 여성 모자는 정수리 모양에 따라 둥근 형과 위로 돌출된 유형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양식을 문헌 및 출토 유물과 비교하여 여성 모자의 정체 및 사용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Table 2>는 여성의 묘역에서 출토된 챙 없는 모자 형(족두리 포함)의 유물 총 24점을 시기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정수리가 둥근 모자

<Fig. 10>과 <Fig. 11>은 각각 신윤복이 그린 ‘저잣길’과 김홍도의 그림 ‘길쌈’에 등장하는 노년 여성의 모습이다. 이들이 착용한 모자류는 그 형태가 뚜

10) 默齋日記, 下, 廿三日甲申 “孝甲婦鄭氏買襦段帽子, 送遺老妻處”

11) 農圃問答, 設邦禁 “其常居之服 着冠子可也...只着如今俗所足道理 及黑帽子 亦無妨也”

〈Fig. 10〉 Woman Wearing a Small Cap
(Left: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71
Right: Illustrated by Researcher)

〈Fig. 11〉 Woman Wearing a Small Cap
(Left: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96
Right: Illustrated by Researcher)

〈Fig. 12〉 17C Woman's Cap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2012, p. 182)

〈Fig. 13〉 17C Woman's Cap
(Lef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d.),
1997, p. 317
Right: Illustrated by Researcher)

렛이 묘사되어 있는데, 모장에서 아랫부분까지 세로 방향의 봉제선이 있어 여러 개의 천 조각을 연결하여 만든 육합모(六合帽)로 확인된다. 〈Fig. 10〉의 경우에는 모자 아래에 넓은 테두리[윤대]와 정수리에 작은 매듭이 달려 있는 것도 비교적 명확히 보인다.

육합모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천 조각 여섯 개를 이어 모자 상부를 둥글게 만든 모자로, 〈Table 2〉에 정리된 여성의 모자 유물 24점 가운데 17점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소재는 흑색(黑色)이나 쪽으로 짙게 염색한 주(紬)·단(緞) 등의 견직물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무명이나 모직(펠트)이 사용된 경우도 있고, 적성 이씨(積城 李氏, 1458-1538)의 겹모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자가 안쪽에 솜을 도톰하게 두른 솜모자이다. 육합모 중에는 끈을 달아 착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거나 모자 정수리에 매듭 장식을 단 것, 윤대의 너비를 달리 한 것도 있다.

특히 〈Fig. 12〉의 진성 이남(眞城 李娘, 17세기 중반) 묘에서 출토된 육합모는 정수리에 작은 매듭 장식이 달려있고 모자 아래에 테두리가 있는 모습이 〈Fig. 10〉의 인물이 착용한 모자와 일치하며, 〈Fig. 13〉의 구례 손씨(求禮 孫氏, 17세기 초반) 육합모 테두리는 이마 선을 따라 앞보다 뒤가 긴 형태인데, 이는 〈Fig. 11〉의 모자와 매우 흡사하다. 출토된 육합모는 염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림과 유물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반가와 서민 여성들이 모두 이같은 육합모를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Kim & Kang(2007)의 연구에 따르면 육합모란 챙이 없는 모자의 한 종류로 모(帽)·모자(帽子)·소모자(小帽子)·원정모(圓頂帽)라 하고 우리말로로는 감투로 부르던 것으로, 이와 관련된 문헌 기록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풍속화를

〈Table 3〉 Old Women Wearing a Small Cap

Date	1701	Mid 18th century	18th century	18th century	Late Joseon Period
Paintings
	〈Fig. 14〉 <i>Namjangsa gamrodo</i> (Kang & Kim, 1995, p. 55)	〈Fig. 15〉 <i>Gamrodo</i> (Kang & Kim, 1995, p. 135)	〈Fig. 16〉 <i>Gyeongjickdo</i>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225)	〈Fig. 17〉 <i>Gyeongjickdo</i> (Supplied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Fig. 18〉 <i>Pungsokhwacheop</i>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201)

보면, 남녀유별이라는 관념이 팽배했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남성들이 즐겨 썼던 모자의 유형이 여성에서도 발견되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본래 남녀 공용에서 유래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남성들이 즐겨 썼던 모자가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생활에서도 편리한 수발 용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어난 공통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유물을 통해 본 육합모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내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면서 색상이나 재질, 구성 면에서 보온에 적합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남녀의 일상용 모자로 충분히 애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이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보면, 〈Fig. 10〉과 같이 먼저 모자를 써서 머리 부분을 단정히 정리한 후, 뒤에서 땀은 머리카락을 모자 주위에 둘러 감아 모자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엷은머리 모양을 연출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Fig. 10〉, 〈Fig. 11〉뿐만 아니라, 〈Table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노년층 여성들에게서 모자를 쓴 모습이 많이 보이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첩자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부족한 머리숱을 감추고 머리모양을 보완하기 위한 심미적인 용도로도 해석된다. 〈Table 3〉의 모자에서는 천 조각을 연결한 봉제선이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는데, 혹여 원통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작자가 육합모를 간략화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조각 천을 이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육합모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앞이 낮고 뒤가 높아 모자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원형의 모정(帽頂)이 달려 있는 족두리가 있다. 족두리는 일반적으로 혼례와 상례 때 사용하는 예장용 관모로 알려져 있지만, 선행연구(Kim, 2008)에 의하면 족두리는 18세기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써왔던 모자로 가채금지령 이후 예장용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장식이 화려하게 더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 족두리라는 용어는 앞서 언급한 조극선의 『야곡집』 중 「삼관기」에서 ‘足頭裡’로 기록된 것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광해군 중기 이후 부녀들 사이에서 가리마를 대신하여 성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삼관기」의 내용을 인용한 『임하필기(林下筆記)』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서는 제외된 부분으로 「삼관기」 원문(原文)에서 새로 발견되었고, 17세기 전반 족두리의 구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 제도는 둥글게 만드는데, 한 조각은 달의 모습처럼 하여 가운데에 넣고, 또 가로로 일곱 조각을 자르되,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한다. 좁은 부분을 둥글게 자른 곳에 고리처럼 꿰매는데, 이마 쪽의 한 조각은 가장 짧다. 왼쪽과 오른쪽의 두 조각은 들쭉날쭉 조금 길고, 뒤의 두 조각은 모두 가장 길다. 정수리 아래를 뒤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봉합한다. 무(武)는 크고 둥글다. 대종소 세 가지 종류가 있다.¹²⁾

12) 治谷先生集, 卷之十, 三官記, 目官 “其制圓裁。一片如

〈Fig. 19〉 16C
Jokduri
(Museum of Old
Road (ed.), 2010,
p. 81)

〈Fig. 20〉 Jokduri of Jo Ban's Wife
(Left: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7, p. 100
Right: Kim, 2008, p. 101)

〈Fig. 21〉 17C Jokdur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ed.), 2008, p. 75)

〈Fig. 22〉
Hoehonryecheop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12)

이를 보면 당시 족두리의 구조와 만드는 방법이 조선 후기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옆면을 연결한 조각천의 모양이 위가 좁고 아래가 넓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족두리 모체를 삼각형 조각으로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9〉의 최진(崔縝, 16세기 후반 추정) 부인의 묘에서 출토된 족두리 유물은 크고 작은 삼각형 일곱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체와 지름 3.5cm의 원형 모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삼관기」의 기록과 일치한다. 일반적인 족두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비해 이 유물은 좁지 않으며, 머리 둘레가 64.5cm이어서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있는 구조이다 (Lee, Ha, Anh, 2007). 조반(趙胖, 1341-1401)의 부인인 계림 이씨(鷄林 李氏, ?-1433)의 반신상(半身像)에서는 〈Fig. 20〉과 같이 치마 저고리 차림에 족두리를 착용한 모습이 발견된다(Kim, 2008). 조반 부인의 족두리는 정수리 원의 크기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최진 부인의 것과 차이가 있으나, 옆면을 구성한 방법은 공통된 것 같다.

선행연구(Lee, Ha, Anh, 2007)에 의하면, 최진 부인의 족두리의 모체는 앞쪽 좌우에 세 조각씩, 그리고 뒤쪽에 커다란 삼각형 조각을 이어서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Fig. 21〉의 족두리 솔기 위치를 보면 최진 부인의 족두리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쪽에 작은 가운데 조각이 있고 그 조각을 중심으로 좌우 세 조각씩 대칭하여 뒷중심까지 연결되는 〈Fig. 21〉의 구례 손씨(求禮 孫氏, 17세기 전반)나 경기도 박물관 소장 안동 권씨(安東 權氏, 1664-1722) 족두리와 비교할 때 구성 방법 및 솔기의 위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삼관기」에서는 크기가 다른 삼각형의 천을 연결하여 만들어 이마쪽에 가장 짧은 조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기록에 나타난 족두리의 양식은 16세기 족두리로부터 변화해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이해된다. 〈Table 2〉에서처럼 구례 손씨 유물의 하단 둘레가 대략 60-70cm이므로 족두리는 17세기까지 〈Fig. 20〉처럼 머리에 완전히 쓸 수 있는 구조였으나, 18세기에 이르러 족두리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머리 위에 얹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18세기 말 풍속화를 보면 〈Fig. 22〉와 같이 얹은머리 위에 얹은 형태로 사용되어 고개를 돋보이기 위한 예모(禮帽)로서의 기능이 부각되었다.

예식 때 족두리를 쓰게 되자 족두리 위에 장식을 붙여 품계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정조 대에 일어나기도 하였다. 『정조실록』 정조 12년(1788) 10월 3일(신묘) 기록을 보면 “지금 평복(平服) 중 평복이요 사복[褻衣] 중 사복인 족두리에다 갑자기 바둑알만한 옥편(玉片)이나 금괴(金塊)를 붙이려 하니, 이것이 불가한 둘째 이유이다.”¹³⁾”라고 하여 족두리에 금은주옥으로 장식하여 품계를 구분하는 일은 불가

月形。置其中。又橫裁七片。而上狹下廣。以狹頭環綴於圓裁處。而當額一片最長。左右各二片。參差漸長。後二片均之最長。跨頂下至于後頂縫合。其武穹然而圓。有大中小三品。”

13) 正祖實錄 12年 10月 3日(辛卯) “今於便服之便服, 褻衣之褻衣, 簇頭里, 忽以如碁大玉片、金塊付之, 此二不可也”

〈Fig. 23〉 Woman Wearing a Small Cap
(Left: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s
(ed.), 2011, p. 25
Right: Illustrated by Researcher)

〈Fig. 24〉 Woman
Wearing a Small Cap
(Supplied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Fig. 25〉 Woman Wearing a
Small Cap
(Hanyang University Museum
(ed), 2003, p. 33)

하다고 지적하는 근거로서 족두리가 본래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던 일상적인 모자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족두리의 용도가 변화하는 과도기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 12월 16일(갑술) 기록에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후계(後髻)를 하고 족두리를 사용하는 것은 바야흐로 옛 제도이고, 인가(人家)에서 혹 행하였는데, 노부녀(老婦女)한테서 오히려 보입니다.”¹⁴⁾라고 한 대목은 일찍이 민간의 노년 여성의 족두리 사용을 시사하며, 즉 족두리도 육합모처럼 노년 여성의 머리를 보호하고 머리모양을 간편하게 하는데 애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수리가 솟은 모자

조선시대 회화를 살펴보면 모자의 옆면에 경사가 지면서 정수리가 솟은 형태로 만들어진 모양의 모자도 많이 관찰되며, 주로 18세기 풍속화 속 부녀들이 일을 할 때나 외출하는 차림새에서 많이 보인다. 그 중에서 조영석의 ‘촌가여행(村家旅行)’에서 절구질하는 부녀인 〈Fig. 23〉과 18세기의 ‘경직도(耕織圖)’의 노년 여성인 〈Fig. 24〉는 특별한 봉제선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수리가 볼록하게 돌출된 유형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자류는 김홍도가 그린 ‘경직도’ 속의 부녀자 모습인 〈Fig. 25〉처럼 정수리

끝에서 맞주름을 잡아 고정하였거나 혹은 펠트를 가지고 봉제선 없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형태의 모자도 육합모와 마찬가지로 풍속화 속에서 서민 남성의 노동과 여가의 장면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정수리가 둥근 모자와 구별되는 형태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인천 석남동 무연고 묘(15세기 말 추정)와 의인 박씨(宜人 朴氏, 16세기 후반)의 모자는 〈Fig. 23 - Fig. 25〉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제작 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실물 자료라고 생각된다. 〈Fig. 26〉의 인천 무연고 묘의 모자는 천을 네 조각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안쪽에는 솜과 모직(펠트)을 덧대고 겉감 쪽에서 세로선으로 누벼 만든 견고한 형태이다. 또 〈Fig. 27〉의 의인 박씨 유물은 신축성 있는 직물을 원통형으로 말아 정수리 안쪽에서 꿰맨 유연한 성질의 모자이다. 이 두 모자는 소재와 제작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착용하였을 때 모자의 윗부분이 비교적 솟아 오른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수리가 솟은 형태 중에서도 〈Table 4〉처럼 유난히 정수리 끝이 뾰족한 모자의 유형은 여성에게만 관찰된다. 이들이 착용한 모자는 뾰족한 모자 끝이 앞쪽으로 살짝 굽은 형태이며 모자의 정면에 각을 낸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 소재가 직물이라면 안쪽을 뾰족하게 접어 만들었거나 솜과 같은 보형물을 넣어 형태를 견고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혹은 종이나 나무 재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조실록』 12년(1788) 10월 3일(신묘)를 보면, 족두리를 만드는 재

14) 承政院日記 英祖 33年 12月 16日(甲戌) “尙魯曰, 後髻而用簇頭里, 自是古制, 人家或行之, 老婦女猶及見之.”

〈Fig. 26〉 Woman's Cap, Circa 15th Century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ed.),
2005, p. 183)

〈Fig. 27〉 Woman's Cap in the Late 16th Century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2, pp. 166-167)

〈Table 4〉 Women Wearing a Small Cap in the 18th Century

Date	1720	Mid 18th Century	18th Century	1790
Painting	<p>〈Fig. 28〉 <i>Gisa-gyecheop</i>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ed.), 2007, p. 72)</p>	<p>〈Fig. 29〉 <i>Gisa-gyeonghoecheop</i>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 124)</p>	<p>〈Fig. 30〉 <i>Hoehonryecheop</i>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12)</p>	<p>〈Fig. 31〉 <i>Yongjusa Gamrodo</i> (Kang, 1995, p. 176)</p>

질로 솜 이외에도 얇게 깎은 대나무[涼竹]를 언급한 바 있고, 서유구(徐有渠, 1765-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簪用志) 족두이(簇頭伊)에서도 봄·여름용 족두리는 풀 먹인 종이[糊紙]로 만든 후 흑색 단(緞)으로 싰다¹⁵⁾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뽕죽한 모자를 만드는데 직물 이외의 다른 재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같이 뽕죽한 모자 형은 『기사계첩(耆社契帖)』(1720), 『갑진기사연회첩(甲辰耆社宴會帖)』(1724), 『이원기로계첩(梨園耆老契帖)』(1730),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1744), 『회혼례첩(回婚禮帖)』(18세기) 등 주로 18세기에 기록적 성격으로 그려진 회화 속 부

녀들의 모습에 한정하여 가장 많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고, 동시기 풍속화 및 감로도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일반 부녀들은 물론이거니와 행사 내에 가무(歌舞)에 동원되는 여기(女妓)와 연회 준비에 참여한 여성들도 모두 이렇게 모정이 뽕죽한 모자를 쓰고 있다.

3. 수건(首巾) 형

옷감을 잘라서 봉제를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머리에 둘러 쓴 것으로 파악되는 부류를 수건 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선 후기의 화가 윤두서(尹斗緒, 1668-1725)의 '채애도(採艾圖)' 속의 여성 〈Fig. 32〉와 김홍도의 '경직도'에 그려진 여성 〈Fig. 33〉처럼 일을 하거나 〈Fig. 34〉의 '화성능행도병(華城陵行圖屏)' 속 야외에 나온 여성 사이로 다양하게 연출된 머릿수건

15) 林園經濟志, 簪用志, 簇頭伊 “春夏糊紙爲之 而裹以黑緞”

〈Fig. 32〉 Woman Wearing a Head Cloth
(Joongangilbosa (ed.), 1985, p. 76)

〈Fig. 33〉 Women Wearing a Head Cloth
(Hanyang University Museum (ed.), 1995, pp. 28-33)

〈Fig. 34〉 Women Wearing a Head Cloth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23)

〈Fig. 35〉 Woman Wearing a Head Cloth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 (ed.), 2002, p. 101)

〈Fig. 36〉 Woman Wearing a Head Cloth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3, p. 31)

이 나타나며, 대체로 비교적 넉넉한 천을 가지고 엮은 머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신윤복의 그림인 〈Fig. 35〉 ‘표묘봉욕(漂母逢辱)’의 빨래하는 여성은 수건을 더욱 접어 올려 멋스럽게 머리 위에 엮은 모습이고, 김득신(金得臣, 1754-1822)의 풍속화 〈Fig. 36〉의 여성같이 추위를 막기 위해 방한모처럼 턱 아래에 묶은 것도 보인다. 이보다 후대에 그려진 『기산 풍속도첩(箕山風俗圖帖)』에 묘사된 쪽머리를 한 여성은 〈Fig. 37〉에서처럼 작은 수건으로 머리를 간편하게 감쌌다. 또 〈Fig. 38〉과 같이 수건을 머리 위에 잘 고정하기 위해 별도의 끈을 단 모습도 있다.

이처럼 수건형의 쓰개는 착장 목적과 머리모양, 개인의 취향에 따라 수건의 크기와 연출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건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가변적 구조이므로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연출한 정황들이 발견된다.

〈Fig. 37〉 Women Wearing a Head Cloth
(Cheong Gye Cheon Museum (ed.), 2008, p. 44)

〈Fig. 38〉 Woman Wearing a Head Cloth
(Cheong Gye Cheon Museum (ed.), 2008, p. 32)

IV. 요약 및 결론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일반 여성의 일상용 머리쓰개는 집 안팎에서 노동하거나 외출하는 기혼녀의 모습에서 많이 발견되며,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

였음을 시각적으로 확인된다. 그 중에서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된 쓰개류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펴 본 결과 크게 ① 사각 천 형, ② 모자 형, ③ 수건 형, 이상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사각 천 형은 회화에서 가리마로 파악되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가리마는 조선 전기부터 사서인의 부인도 쓴 것임이 밝혀졌으며,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 서민 여성이 머리에 사각 천을 머리에 얹은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이전 시기의 유습(遺習)으로 생각된다. 또 문헌 고찰을 통해 첩지의 유래를 새로 밝힐 수 있었는데, 조선 말기의 첩지는 내외명부의 예장용 머리장식이었으나, 18세기에는 빈약한 머리술을 가리기 위해 두상에 덮은 검은 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크기가 아주 작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모자 형은 모정의 모양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모정이 둥근 모자에는 육합모와 족두리가 있다. 육합모는 여성의 출토 모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며 남성의 유물과도 공통되는데, 회화를 통해서 여성의 육합모가 상례용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모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노인들은 육합모를 쓰고 그 주위에 백발을 둘러 고정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 모자의 용도는 방한용뿐만 아니라 첩지와 같이 빈약한 머리술을 감추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판단된다. 주로 검은색을 사용하여 머리카락과 함께 착용했던 모자류는 가체가 유행하였던 시기에 적은 비용과 쉬운 방법으로 머리 모양을 보완할 수 있는 간편한 수발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었다고 본다. 족두리는 육합모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모체가 일곱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기울어진 형상에서 육합모와 확연히 구별된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 주로 예장용으로 착용된 사례가 많이 보이지만, 문헌과 유물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육합모와 마찬가지로 일상용으로 사용된 모자에서 기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정이 뾰족한 모자는 특히 18세기 회화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물이나 문헌 자료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지만, 네 조각 천을 연결하고 안

쪽에 솜을 넣어 단단하게 만든 사합모나 모정의 끝을 약간 접어 박아 만든 원추형 유물을 통해 모정이 돌출된 모자 유형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수건 형은 당시 서민 여성들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난다. 천을 가지고 머리를 완전히 덮어서 노동 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외출 시에는 방한 및 방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용도와 편이에 따라 수건을 두르는 방법 또한 다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일상용 쓰개 중에는 옷감으로 간편하게 봉제해 만든 종류가 많고, 무엇보다 머리모양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다는 점이 남성의 관모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관모는 상투를 덮는 양식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는 길게 땅아 올린 체발이 있어, 수건 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쓰개 바깥으로 나온 체발이 쓰개 주변을 둘러 고정시켰다. 이는 얹은머리를 하였을 경우에 체발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실용적인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특히 나이는 여성의 머리술을 보완하기 위해 검은 천이나 모자가 사용된 점에서는 쓰개의 편리성 외에 심미적 기능까지 엿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화를 중심으로 여성의 일상적 쓰개의 특징과 사용례를 살펴보고자 상당수의 풍속화와 기록화 등을 자세하게 고찰하였으나, 불분명하게 그려진 그림도 적지 않기에 논문에서 배제된 자료들이 있고, 그로 인해 당시의 풍속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회화와 출토 유물을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상류층 여성의 예장용 두식이 아닌, 기록이 흔하지 않은 일반 여성들의 일상적 두식의 정체를 일면(一面)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새로운 연구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조선시대 여성 머리모양에 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An, M. S. (2014). Characteristics and sewing method of Jeju Yang's(1589~1687) costumes which excavated from Chonnam Naju. *Study of Namdo Folk*, 25, 177-204.

- And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ed.) (2000). *The excavation report of the Kosong Yi graves at Chongsang-dong, Andong*. Andong, Republic of Korea: And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 Byeong-ge-jib* [병계집] (since the late 18th century).
- Cheong Gye Cheon Museum. (ed.) (2008). *Gisanpung-sokdo*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Seoul, Republic of Korea: Cheong Gye Cheon Museum.
- Choi, H. J. (2012). *A study on excavated headgears in th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71594>
- Choi, J. H. (2002). (A) *Study on dress during the 16th century of Chosun Dynasty through Kiyeonghoido*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5371>
- Chung, B. M. (2011). Portrayal and significance of 'Everyday Life' in the Genre Paintings of Late Joseon. *Art History*, 25, 331-358.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ed.) (2008). *Women costume of Joseon dynasty*. Cheongju, Republic of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d.) (1997). *Important folk materials II*. Daejeon, Republic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Daejeon Metropolitan C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Traditional Costume Research Institute. (ed.) (2007). *Excavated costumes of Yeosan Song's*. Daejeon, Republic of Korea: Daejeon Metropolitan City.
-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ed.) (2007). *Engagement with Korean art : 100 masterpieces from th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Republic of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 Geondeulbaw Museum. (ed.) (1991). *(the) Excavation report of the Jinju Ha graves*. Daegu, Republic of Korea: Geondeulbaw Museum.
- Gukjo-orye-ui* [국조오례의] (1474).
- Gukjosok-orye-ui* [국조속오례의] (1744).
- Gwangju Folk Museum. (ed.) (2000). *Korean clothes in the middle of Chosn Dynasty*. Gwangju, Republic of Korea: Gwangju Folk Museum.
- Gyeongdojabji* [경도잡지] (18-19th century).
-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2). *Excavated Costumes from Jinju-Ryu's*.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 Hanyang University Museum. (ed.) (2003). *Hanyang University Museum* [한양대학교박물관개관기념도록]. Seoul, Republic of Korea: Hanyang University Museum.
- Imwon-gyeongje-ji* [임원경제지] (19th century).
-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ed.) (2005). *(Incheon Seoknamdong) Excavated costumes*. Seoul, Republic of Korea: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 Joseonwangjosillok* [조선왕조실록] (n.d.).
- Jung, G. E. (2013). *Empirical investigation research on woman's Garima in Choson Dynast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pusa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85600>
- Joonganilbosa. (ed.) (1985). *Pungsokhwa* [한국의 미19-풍속화]. Seoul, Republic of Korea: Jungangilbosa.
- Kang, W. B., Kim, S. H. (1995). *The world of nectar ritual painting*. Seoul, Republic of Korea: Yekyong.
- Kim, E. J., Kang, S. C. (2007). A study on the Gamt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6), 112-121.
- Kim, J. K. (2014). *Research on excavated costume of Manggeon(Headband) and Somoja(Skullcap) of th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sw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756405>
- Kim, J. (2008). (A) *Study on the woman's ceremonial headdress in Joseon perio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8638>
- Kim, J., Hong, N. Y. (2010). Making Method and Use of the 18th Century Jokduri in Ijae-nan-g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8), 86-99.
- Kim, J. Y. (2012). (A) *study on the conservation of excavated costumes from Hamyang Park's : female, middle to late 1500'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63507>
- Kim, M. J. (2006). (A) *Study on the Jeoksung-Lee (female, 1458~1538)'s jeogori : A find excavated from Gwangju, representative of early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9055>
- Kim, M. S. (2004). A study on folk costumes of the 17th century from Okcheon, Korea.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7(1), 55-64.
- Kim, Y. S. (1996). Development of genre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ory of Korean history in Sookmyung*, 2, 201-216.
- Koh, B. J. (1999). Excavated grain Remains of Goryeong-Shin's. *Korean Costumes*, 17, 41-128.
- Lee, E. J. (2001). The costume culture in early 17th

- century perspectives through excavated letters of Hyun-Poong Kwak's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8), 25-41.
- Lee, E. J., Ha, M. E., Anh, T. H. (2007). The historical value of excavated costume in late 16th century from three tombs of the Choi family originated Jeonju in Mungyeong.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0(1), 155-171.
- Lee, K. H. (1998). Genre scenes in nectar ritual paintings of Korea.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220, 79-107.
- Lee, M. E. (2013). Excavated costumes of the Joseon Dynasty. *7th Sangju Museum College of Traditional Culture*. Sangju Museum. Sangju, Republic of Korea: Sangju Museum.
- Lee, T. H. (2006). Women's customs and women's beauty sense in genre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dynasty.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13, 35-73.
- Mukje-ilgi* [목재일기] (16th century).
- Museum of Old Roads. (ed.) (2010). *Story involved in Jungchimak*.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 Museum of Old Roads. (ed.) (2005). *Where has she been in her Geumseondan skirt*. Seoul, Republic of Korea: And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 National Gugak Center. (ed.) (2001). *Paintings of banquets during the Joseon dynasty*.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Gugak Center.
- National Gugak Center. (ed.) (2003). *Joseon dynasty genre painting of music 2*.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Gugak Center.
-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Genre Paintings of Joseon Dynasty*.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7). *Joseon Portraits I*.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1999). *Korean cultural properties of the Guimet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France*.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 (2012). *Conservation of artifacts excavated from Jinseong Lee's grave*.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Nongpo-mundab* [농포문답] (18th century).
- Park, S. S. (1992). *Study on exhumed clothing of the early Chosu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ved from <http://library.sejong.ac.kr/%2Fsearch%2FDetailView.ax%3Fsid%3D1%26cid%3D37307>
-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s. (ed.) (2000). *Kansongmunhwa*, 59. Seoul, Republic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thnic Art.
-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s. (ed.) (2002). *Kansongmunhwa*, 62. Seoul, Republic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thnic Art.
-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Arts. (ed.) (2011). *Kansongmunhwa*, 81. Seoul, Republic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thnic Art.
- Seugjeongwon-ilgi* [승정원일기] (n.d.).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3). *(The) elegance and beauty of the life of the Yangban in the Joseon dynasty*. Seoul,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Yagok-jib* [야곡집] (17th century).
- Yu, O. K. (2002). *Genre paintings of Joseon Dynasty*.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Korea : Republic of Korea, 266-273.